

1/5/20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6 장 10 - 20 절

(막 16: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 16: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절판주** 눅 24:11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눅 24:13-35)

(막 16: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절판주** 눅 24:15

(막 16: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 28:16-20; 눅 24:36-49; 요 20:19-23; 행 1:6-8)

(막 16: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절판주** 눅 24:36, 요 20:19, 고전 15:5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절판주** 눅 10:19, 행 28:5

하늘로 올려지시다(눅 24:50-53; 행 1:9-11)

(막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20 년 첫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립니다.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차례대로 보아왔던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새해 첫 예배와 마지막 장이 어울려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렇지라도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절기 설교를 하지 않고 하던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2020 년 첫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특별히 열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승귀하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 이후 첫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대로 부활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자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긴 했지만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생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긴 했지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시신을 끌어 내려 장사를 지낸 후 무덤에까지 안치시켰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반갑고 기뻐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머리 속에는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광석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숨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막 16: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 16:11)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신 예수님은 그 후 고향 엠마로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절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내려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는 동안 성경을 풀어 주시기도 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한 후 너무 기쁜 나머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며 숨어있는 열 한 제자들과 그와 함께 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 16: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막 16:13)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는 이 사건을 간단히 두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의사여서 성격이 좀 더 세밀했던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눅 24:13)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눅 24:14)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눅 24: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눅 24: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눅 24: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눅 24: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눅 24: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눅 24: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눅 24: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눅 24: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눅 24: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 (눅 24: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 (눅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 (눅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 (눅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 (눅 24: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 (눅 24: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 (눅 24: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 (눅 24: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 (눅 24: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 (눅 24: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 (눅 24: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 (눅 24: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의 기록으로 보아 두 제자 중 한명은 글로바였고 그들이 간 시골이 그들의 고향 엠마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 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꾸짖으셨습니다.

- (막 16: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믿으려 하지는 더욱 않았습니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등극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적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사람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진리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기복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곧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계시록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십니다.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었던 복음 전파 대상이 이제 온 천하 만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신 그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으며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복음으로 새이스라엘을 형성하시고 새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어 이면적 유대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과 권능을 말씀해 주십니다.

(막 16: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첫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죄인이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늘 법정에서 죄 사함을 받고 칭의를 얻어 죽음에서 건져져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막 8: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이 따르게 됩니다.

그 권능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40 일을 세상에서 지내시다가 제자들을 비롯해 500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하늘로 승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에 하늘에서 맺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성자 예수를 당신의 우편에 안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목자없이 남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막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을 때마다 resolution 을 세워 놓고 이번만큼은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2020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2020 년 새해를 맞이하여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2020 년은 ‘복음 전파하기’를 resolution 으로 정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유언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열 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지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 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유언이자 지상 명령인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0 년은 너무 멀리 있어 손에 닿지 않는 막역한 선교를 하기보다 가까이 있어 쉽게 시도할 수 있고 직접 결과를 볼 수 있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로 정하여 실천하면 어떨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입으로만 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친지 친구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그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2020 년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 향기를 맡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